



일본 주요 12개 생명보험회사, 전년대비 경상이익 개선

박정희 선임연구원

■ 지난 5월 24일 발표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FY2011 실적에 따르면, 주요 13개사¹⁾ 가운데 12개사의 경상이익이 이자수익 증가 등²⁾으로 개선됨.

- 주요 13개사의 경상이익은 닛폰 생명이 5,443억 엔(5.4%)을, 메이지 야스다 생명 3,709억 엔(19.5%), 다이치 생명 3,199억 엔(17.0%), 스미토모 생명 3,318억 엔(25.1%)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으나, 푸르덴셜 생명은 1,188억 엔으로 전년대비 1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³⁾
 - 푸르덴셜 생명의 이익감소 원인은 지난 1월 AIG스타 생명과 에디슨 생명 등 2개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 때문임.
- 한편, 닛폰(日本) 생명, 다이치(第一) 생명 등 9개사의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4개사는 감소하였음.
 -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9개사의 경우 은행창구를 통한 종신보험과 저축성 상품이 인기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이나 노인 계층의 계약이 크게 성장하였기 때문임.

■ 특히, 이번 실적에서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 1992년 3분기 이후 20년 만에 운용이율이 계약자의 평균 예정이율⁴⁾에 못 미치는 ‘역마진’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남.

- 메이지 야스다 생명이 192억 엔의 순마진을, 일본 최대 생보사인 닛폰 생명도 316억 엔의 순마진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1) 닛폰(日本),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 다이치(第一), 스미토모(住友), 푸르덴셜(プルデンシャル), 아플락(アフラック), T&D, 메트라이프(メットライフアリコ), 후코쿠(富国), 소니(ソニー), 악사(アクサ), 미즈이스미토모(三井), 아사히무츄얼(朝日) 등임.

2)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수준이 예상보다 낮았으며, 예정이율이 높은 버블기의 보험계약이 만기를 맞이하면서 이익이 증대됨.

3)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4) 납입된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적립·운용해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할인율임.

- 그 외 T&D 홀딩스(202억 엔)와 스미토모 생명(669억 엔)의 역마진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닛폰 생명의 마츠야마 전무(松山 専務)는 2013년 3월 결산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보험회사의 경상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산케이 외, 5/25)